

아동기 학대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효과*

이기범

주해원

현명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아동기에 경험한 신체 및 정서 학대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용서의 개념을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용서가 지니는 긍정적인 기능을 세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대학생 247명(남자 143명, 여자 104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학대 경험(K-CTQ), 자살사고(SIQ), 용서(HFS)를 측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과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용서에 따른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신체 및 정서 학대 경험은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자살 위험성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용서의 세 가지 하위개념 중 자기용서와 상황용서는 아동기 학대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인 반면, 타인용서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아동기 학대 피해자의 자기용서와 상황용서를 증진시킴으로써 그들의 자살사고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용서의 긍정적인 기능을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 등을 논의하였다.

* 주요어 : 아동기 학대, 자살사고,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

* 이 논문은 2015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06974)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서론

최근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크게 다뤄지면서 한국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발생해온 사회적 문제로서, 한국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빈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보건복지부, 2015)에 따르면 2012년에 보고된 아동학대는 총 9,938건이었으며 그 중 신체학대는 2,858건, 정서학대는 3,785건을 차지하였다. 이는 10년 전인 2002년과 비교하면 171.5%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정서학대가 크게 늘어 293.9% 증가하였다. 학대행위자를 분류하여 보면 총 6,403건의 학대행위 중 친부의 학대가 3,013건, 친모의 학대는 2,090건으로 부모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 학대를 제외하고는 학대행위자의 77.8%가 지속관찰 조치에 취해졌고 학대를 경험한 아동 중 70.9%를 주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원 가정보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다. 이는 학대아동과 학대행위자를 별다른 치료나 조치가 없이 다시 학대의 위험성이 높은 환경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어서 많은 아동이 여전히 반복적인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한국 학계에 처음 사용된 1970년대에는 그 범위가 신체학대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신체학대 뿐 아니라 정서학대, 성 학대 및 방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성혜, 1992).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이는 신체학대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정서학대, 유기, 방임처럼 소극적인 학대까지도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하여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학대란 양육자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을 때리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신체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Kempe & Helfer, 1974),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신체학대 행위는 손발로 때림, 도구로 때림, 물건 던짐 등이었다(보건복지부, 2015). 특히 물리적 고통과 함께 극심한 두려움을 수반하는 신체학대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경우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와 같은 심리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으며, 충동적인 공격성 및 자살행동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학대 유형보다 최우선으로 개입하여야 할 영역이다(Joiner et al., 2007).

신체학대에 비해 정서학대는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영역으로, 직접적인 신체 손상을 초래하지 않으나 양육자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아동의 심리적 자아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한다(신혜영, 최해림 2003; 허남순, 1993). 정서학대에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및 공격, 거부행위, 감금, 억제 등의 가학적 행위 등이 포함되며 한국에서는

소리 지름, 공포분위기 조성, 언어적 폭력이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양육자나 보호자의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및 방임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기 학대 경험은 우울, 분노,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어렵게 하고(이석희, 김경희, 김지수, 김지숙, 2012; Browne & Finkelhor, 1986), 수치심을 유발하며(박은주, 2008), 자아존중감 저하(Gross & Keller, 1992), 부정적인 자기상(장용환, 송지혜, 2011), 사회적 위축(신혜영, 최해립, 2003), 공격성과 분노(황은수, 성영혜, 2006; Dyer et al., 2009) 등을 유발한다. 또한 아동기에 부모나 주변 사람을 통해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를 경험할 경우, 복합 PTSD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라영선, 현명호, 차성이, 윤선영, 2010). 복합 PTSD의 핵심 증상 중 하나는 정서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으로 분노폭발이나 자해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 연구결과(박병금, 2007; 오승환, 이창한, 2010; Perkins & Jones, 2004)에 따르면 아동기 학대경험은 자해와 자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의 여러 위험요인 중에서도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 일관적으로 밝혀졌다(김유락, 2014; 김혜성, 2007; 박재연, 2010; 이석희 등, 2012; 최윤정, 2012). 예컨대, 박경(2005)은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학대, 방임, 반복적인 피학대 경험이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한 김석조(2015)도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성별, 가구 소득, 자아존중감, 학업스트레스 등의 가외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자살은 일단 성공하게 되면 결과를 돌이킬 수 없으며, 희생자의 가족과 주변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자살은 자살사고, 자살의도, 자살시도, 자살완료의 4가지 하위차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Reynolds, 1988). Beck 외(1973)에 의하면 자살사고(suicide ideation)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살에 대해 생각하거나 계획하는 것으로 자살을 시도하게 하고 심한 경우 자살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살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지표이다(심혜선, 김지현, 2013에서 재인용). 따라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사고가 자살시도 및 자살완료로 이어지기 전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아론, 이영순, 2012). 특히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4,427명으로, 10년 전(10,898명)보다 32.4%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사망자 266,257명의 5.4%에 달하는 수치이며, 특히 자살은 10대-30대의 사망원인 중 1위로 나타났다(통계청, 201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에 취약할 수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살사고 및 자살충동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을 증진시켜 심리적 내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같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이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대처가 필요한데, 최근에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하나로서 용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용서란 상처받은 사람이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정서·행동을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대치하는 과정으로, 분노 및 적대감을 기꺼이 포기하고 연민과 관용, 도덕적 사랑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는 내적인 변화과정을 말한다(Enright & Fitzgibbons, 2000). Thompson과 Snyder(2003)는 용서를 ‘사고·정서·행동의 재구조화 과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 부정적 사건에 대해 다시 생각하여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버리고 동정과 자비를 베풀기로 결심하는 것은 매우 큰 인지적 재구조화라고 할 수 있다. 용서는 피해자에게 부족한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기보다는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은 상태’를 감소시킴으로써 분노, 스트레스, 우울 등이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즉, 부정적인 과거 사건에 대해 인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Greenberg, Warwar, & Malcolm, 2008).

용서의 정의 및 하위개념에 대해서는 학자 간의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용서를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타인용서는 일반적인 용서의 의미로서,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집착, 미움을 버리고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McCullough, 2000). 반면 자기용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했을 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버리고 자신에 대해 연민, 관대함, 사랑을 촉진하고 미래의 변화를 다짐하는 의지로, 이러한 자기용서를 통해 자신의 사고와 정서,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가 변화할 수 있다(Enright, 1996; Feedman, 1998; Horsburgh, 1974). 마지막으로 상황용서는 해당 사건의 상황 및 정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어 재해석하는 과정이다(Thompson et al., 2005). 이러한 용서는 적극적인 자기치유와 자기회복의 과정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상처를 치료해주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박종효, 2003). 예를 들면 용서는 대인관계에서의 상처로 인한 분노,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 상태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김광수, 2002), 심혈관계 질환, 혈압, 당뇨, 화병과 같은 신체 증상과도 부적 상관성이 있었다(구세준, 배성만, 현명호, 2011; Dewall, Pond, & Bushman, 2010; Lawler-Row, Karremans, Scott, Edlis-Matiahou, & Edwards, 2008). 또한 용서는 희망, 감정통제,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촉진함으로써 가족으로부터 외상을 경험한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라영선 등, 2010; 오영희, 2004; Controneo, 1982; Enright & Fitzgibbons, 2000; Worthington, 2005).

용서가 상처받은 개인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지만, 최근에는 용서의 구성개념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용서의 하위요인이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용서의 차별적인 효과를 연구한 하늘, 배성만, 현명호(2011)에 따르면, 자기용서는 성 피해자의 수치심으로 인한 자기비난을 낮춤으로써 자기폭력적 행위를 완화시키는 치료적 변인으로 기능하였고, 상황용서도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세상에 대한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삶의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

였다. 그러나 타인용서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못하였는데, 이는 가해자와 관련된 일을 떠올리는 타인용서의 과정 자체가 성 피해자에게는 이차적인 심리적 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아동학대 생존자의 PTSD와 용서,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Snyder와 Heinze(2005)의 연구에서도 자기용서와 상황용서는 강력한 매개효과를 보였지만 타인용서는 그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용서의 하위개념에 따라 용서가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용서의 세 하위개념인 자기용서와 타인용서, 상황용서가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용서개념이 지니는 긍정적인 효과를 세부적으로 검증하고 아동기 학대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상담 장면에서의 효과적인 개입과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용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에 위치한 C대학교 학생 중 설문 참여에 동의한 252명(남자 148명, 여자 104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학대 경험, 자살사고, 용서를 측정하는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살사고에 대한 설문은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의 중도 포기 권리와 비밀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지에 연구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서 설문에 참여하는 동안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 참가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4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247명(남자 143명, 여자 104명)의 평균 연령은 22.81세(표준편차 1.94)였다.

측정도구

아동기 학대 경험

아동기의 신체 및 정서적 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2009)이 타당화한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K-CTQ: Korean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중에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0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학대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신체학대는 ‘가족 중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아 약국이나 병원에 간 적이 있다.’, ‘회초리, 벨트, 나무 막대 등 단단한 물건으로 맞았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고, 정서학대는 ‘나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가슴 아픈 말을 한 가족이 있었다.’, ‘우리 가족은 나를 멍청이, 게으름뱅이, 바보, 병신이라고 놀렸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기 학대 경험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자살사고

자살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Reynolds(1988)의 ‘자살사고 척도(SIQ: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를 박병금(2007)이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고, 최순옥, 김숙남(2011)이 대학생에 맞게 일부 문항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의 0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살을 할까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다.

용서

자기용서와 타인용서 및 상황용서를 측정하기 위해 Thompson 외(2005)의 ‘Heartland 용서 척도(HFS: Heartland Forgiveness Scale)’를 이초룡(2009)이 한국어로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HFS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 자신을 용서하는 경향성인 자기용서, 타인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 타인을 용서하는 경향성인 타인용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발생한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 그 상황을 용서하는 경향성인 상황용서 각각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였으며, 자기용서 .65, 타인용서 .71, 상황용서 .70로 나타났다.

분석

모든 자료 처리 및 분석은 SPSS 20.0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과정을 거쳤으며, 아동기 신체·정서학대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세 가지 용서가 각각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우에는 조절효과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에 사용된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표 1>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아동기 학대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	자살사고
아동기 학대	-				
자기용서	-.19**	-			
타인용서	-.15*	.30**	-		
상황용서	-.15*	.58**	.52**	-	
자살사고	.48**	-.16*	-.15*	-.24**	-
평균	5.25	29.30	26.22	27.89	10.16
표준편차	5.73	4.59	5.67	4.99	10.37

* $p < .05$, ** $p < .01$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용서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용서의 유형 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와 같이, 아동기 학대는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었고($\beta = .48, t = 8.57, p < .001$), 자기용서는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07, t = -1.27, n.s.$). 그러나, 아동기 학대와 자기용서의 상호작용은 자살사고를 예측하였다($\beta = -.74, t = -2.41, p < .05$). 즉 자기용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용서의 경우에는 타인용서 및 아동기 학대와 타인용서의 상호작용 모두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beta = -.07, t = -1.33, n.s.$; $\beta = -.22, t = -.85, n.s.$).

마지막으로 상황용서는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 = -.17, t = -3.00, p < .01$), 아동기 학대와 상황용서의 상호작용이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 = -.84, t = -3.04, p < .01$). 즉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황용서가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상호작용이 유의한 자기용서와 상황용서의 조절효과를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대와 용서 점수가 상·하위 30%에 해당하는 참가자를 각각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자살사고의 수준을 그림 1과 그림 2로 표현하였다. 자기용서의 조절효과는 아동기 학대를 적게 경험한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F(1,101) = .21, n.s.$), 아동기 학대를 많이 경험한 집단에서 유의하였다($F(1,101) = 8.41, p < .01$). 타인용서의 조절효과 역시 학대를 적게 경험한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F(1,97) = .14, n.s.$) 학대를 많이

경험한 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F(1,97)=8.25, p<.01$). 이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많더라도 자기용서와 상황용서가 높을 때 자살사고가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자기용서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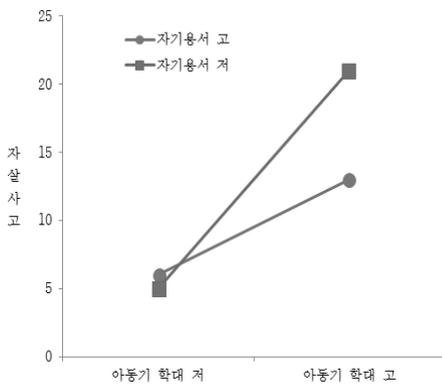
단계	투입변수	β	t	R^2	ΔR^2
1단계	아동기 학대	.48	8.57***	.23	.23
2단계	아동기 학대	.47	8.19***	.24	.01
	자기용서	-.07	-1.27		
3단계	아동기 학대	1.21	3.87***	.25	.02
	자기용서	.06	.74		
	아동기 학대 x 자기용서	-.74	-2.41*		

* $p<.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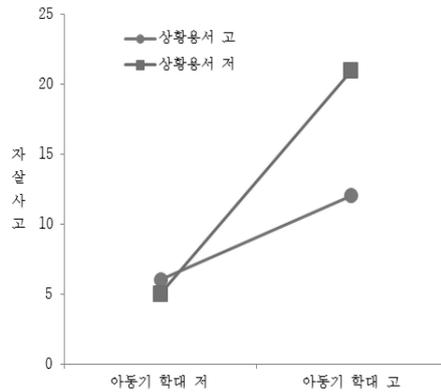
<표 3>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상황용서의 조절효과

단계	투입변수	β	t	R^2	ΔR^2
1단계	아동기 학대	.48	8.57***	.23	.23
2단계	아동기 학대	.46	8.15***	.26	.03
	상황용서	-.17	-3.00**		
3단계	아동기 학대	1.29	4.60***	.29	.03
	상황용서	-.00	-.03		
	아동기 학대 x 상황용서	-.84	-3.04**		

** $p<.01$, *** $p<.001$



[그림 1] 자기용서의 조절효과



[그림 2] 상황용서의 조절효과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특히 자살이라는 심각한 자기폭력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이석희 외, 2012; 최윤정, 2012)를 바탕으로 아동기 신체 및 정서학대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과 더불어 개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는 용서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용서를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용서가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살사고의 보호요인으로서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경험이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하여 아동기에 신체학대나 정서학대를 많이 경험했을수록 자살사고도 높았다. 이는 아동기 신체·정서학대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정적관계를 밝힌 선행연구 결과(박병금, 2007; 박재산, 문재우, 2010; 박재연, 2010; 장용환, 송지혜, 2011)와 일치한다. 아동기 학대 경험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자기폭력 행위의 전 단계인 자살사고를 약 20%를 설명하였는데, 이는 아동학대 경험자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자살예방 교육의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아동기 신체·정서학대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자기용서와 상황용서는 조절효과가 유의했던 반면, 타인용서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용서가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아동기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가지고 자신을 비난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의지를 가지는 과정을 통해 자살사고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상황용서의 조절효과는 아동학대 피해자가 학대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어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상황용서 과정을 통해 자살사고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경험자를 치유하기 위해 용서를 교육시키거나(Denton & Martin, 1998) 용서의 긍정적 기능이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자살사고를 완화시킨 연구(심혜선, 김지현, 2013)를 지지한다. 용서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Enright, 1996)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입을 통해 아동학대 경험자의 자기용서와 상황용서를 증진시킴으로써 자살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용서 연구가 타인용서의 긍정적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온 것(김광수, 2002; 이아름, 이민규, 2013)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타인용서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 피해자의 수치심과 우울 및 용서의 관계를 연구한 하늘 외(2011)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타인용서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살은 극단적인 자기폭력 행위로서 자신의 분노와 공격성을 자기 내면의 부정적인 자아상에게 표출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용서는 자기연민을 통해 자기비난을 낮추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극단적 자기폭력행위인 자살사고를

조절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타인용서는 용서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자기용서와는 다소 이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타인용서가 낮은 사람은 분노와 비난을 자기 자신 보다는 타인이나 가해자에게 표출하기 때문에, 자기폭력행위인 자살사고에서는 유의한 조절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용서연구에서는 연구자마다 용서를 다르게 정의하였고 용서의 하위개념을 각기 다른 구성개념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용서의 회복적 기능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Subkoviak 외(1995)가 개발한 Enright 용서척도(EFI)는 용서를 가해 대상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정서, 부정적/긍정적 행동, 부정적/긍정적 인지 등의 여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많은 국내 연구에서 이를 근거로 용서를 정서적 용서, 인지적 용서, 행동적 용서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박경미, 고재홍, 2013). 한편 박철욱, 안현의(2009)는 회피동기와 보복동기를 측정하여 용서를 연구하였고, 라영선 외(2010)는 용서를 상황용서와 특질용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연구한 바 있으며, 박종호(2012)는 용서하기, 용서받기, 자기용서로 나누어 용서의 구성개념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가 제안한 용서의 다각적 측면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용서의 개념을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로 구분하여 연구함으로써 세 가지 용서에 따른 긍정적 기능을 세부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용서의 종류에 따라 조절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상처받은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세 가지 용서의 기제를 밝혀낼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5), 청소년의 자살률 역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자살 예방에 있어서 용서 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기용서는 자아존중감 및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김광수, 양근성, 201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용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용서는 특정 사건이나 피해 사실에 대한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된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직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운 내적 변화 과정이다(오영희, 1995). 이는 통찰처럼 어느 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인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역동적이고 진행적인 과정이기 때문에(한형준, 이희경, 2012) 오랜 시간과 상당한 인지적·정서적 노력이 요구된다. McCullough와 Worthington(1999)은 심각한 학대를 경험했거나 가해사건으로 인해 상처가 큰 경우에는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는데, 특히 성 학대 및 강간 피해자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담 및 심리치료 과정에서 용서를 할 준비가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타인용서, 즉 가해자 용서를 촉진시키는 치료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내담자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담자와의 치료관계가 손상되거나 피해상황에 대한 고통을 부인하고 가해자의 행

동을 묵과하는 거짓용서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타인용서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치료 장면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도록 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기용서를 증진시켜 피해를 입은 자신에 대한 연민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하고, 상황용서를 증진시켜 학대를 받았던 상황에 대한 재해석과 인식의 재구조화를 돕는 것이 아동학대 피해자의 자살사고를 낮추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타인용서의 개념을 치료에 적용한 기존의 용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자기용서와 상황용서에 우선 개입함으로써 기존 용서 프로그램의 시간·비용적 효율성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일반 대학생이어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를 포함하고, 심각한 아동학대를 경험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은 용서의 개념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데 있어서 대학생보다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용서개입 프로그램에서는 그들이 이해하기 적절한 용서의 개념과 방법을 구체적인 인지·정서·행동의 형태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대를 당한 시기와 연령, 학대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학대를 당한 연령이 어릴수록 학대를 방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숙도와 힘이 약하며, 학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의 영향이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학대와 관련된 변인을 측정하여 변인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학대 피해자의 경과를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구분한 세 가지의 용서는 다른 심리적 변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용서는 자아개념과 상관이 있으며(한형준, 이희경, 2012) 상황용서는 성향적 낙관성과 상관이 있다(김민정, 이희경, 2009). 추후 연구에서는 용서와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폭넓게 살펴보고 분석하여 용서에 대한 통합적 이해의 범위를 넓힐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용서를 하나의 개념으로 고려하는 기존의 용서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용서의 각 하위개념의 특징을 반영한 새로운 용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대 피해자에게 치료 장면에서 용서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자살 예방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성혜 (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세준, 배성만, 현명호 (2011). 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용서가 화병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691-707.
- 김광수 (2002). 용서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상처경험자의 자존감 불안 분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0(1), 165-191.
- 김광수, 양곤성 (2012). 용서상담프로그램이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의 용서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0(1), 175-192.
- 김민정, 이희경 (2009).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 변인으로. 사회과학연구, 25, 49-67.
- 김석조 (2015).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위축의 매개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락 (2014).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성 (2007). 성별 차이에서 본 학대경험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지, 2007(1), 333-337.
- 라영선, 현명호, 차성이, 윤선영 (2010). 아동기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및 용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21-34.
- 박경 (2005).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2), 131-147.
- 박경미, 고재홍 (2013).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외상후 스트레스간의 관계: 용서의 역할. 청소년상담연구, 21(1), 257-274.
- 박병금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연구: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505-522.
- 박은주 (2008).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자녀의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연구, 18(1), 192-229.
- 박재산, 문재우 (2010).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27, 105-131.
- 박재연 (2010).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 차이. 한국가족복지학, 28, 61-92.
- 박종효 (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01-321.
- 박종효 (2012). 용서, 성격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 탐색. 교육심리연구, 26(4), 927-949.
- 박철옥, 안현의 (2009). 새터민의 대인관계적 외상 경험, 용서, 경험회피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0(4), 1891-1905.
- 보건복지부 (2015). 아동복지법.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5).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서울: 보건복지부.
- 심혜영, 최혜림 (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95-307.
- 심혜선, 김지현 (2013). 여성의 수치심, 자기용서와 자살생각: 자기용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4(1), 159-179.
- 오승환, 이창한 (2010). 청소년의 자살충동 결정요인 분석: 개인, 가족, 학교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6(2), 147-170.
- 오영희 (1995). 용서를 통한 한(恨)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1), 70-94.
- 오영희 (2004). 대학생의 부모-자녀 갈등경험, 용서, 정신건강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59-77.
-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 (2009).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타당화: 상담 및 치료적 개입에서의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563-578.
- 이석희, 김경희, 김지수, 김기숙 (2012). 중학생의 성격특성, 아동기 학대경험 및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3(4), 386-394.
- 이아름, 이민규 (2013).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신체증상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45-61.
- 이초롱 (2009). Testing a mediation effects of rumin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positional forgiveness and depression.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용환, 송지혜 (2011).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청소년 자아존중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책과학연구, 20(2), 80-104.
- 최순옥, 김숙남 (2011).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영성.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2), 190-199.
- 최아론, 이영순 (2012). 고등학생의 인지적 몰락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용서, 삶의 의미, 감사, 희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4), 1937-1953.
- 최윤정 (2012).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대학생 자살생각에 미치는 과정분석: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2), 307-333.
- 통계청 (2014). 사망원인통계. 서울: 통계청.
- 하늘, 배성만, 현명호 (2011). 성피해자의 수치심과 우울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725-737.
- 한형준, 이희경 (2012). 용서신념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를 통한 용서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2), 761-777.
- 허남순 (1993).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아동복지학, 1(1), 23-45.
- 황은수, 성영혜 (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인식정서의 매

- 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9(2), 73-89.
- Beck, A. T., Davis, J. H., Fredrick, C. J., Perlin, S., Pokerny, A. D., & Schulman, R. E., Seiden, R. H., & Wittlin, B. J. (1973). Classification and nomenclature. In H. L. Resnick, & B. C. Hawthorne (Eds.), *Suicide prevention in the seventies* (pp. 7-21).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Browne, A., & Finkelhor, D. (1986).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 review of the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9, 66-77.
- Controneo, M. (1982). The role of forgiveness in family therapy. In A. J. Gurman (Ed.), *Questions and answers in the practice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241-244.
- Denton, R. T., & Martin, M. W. (1998). Defining forgiveness: An empirical exploration of process and rol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281-292.
- DeWall, C. N., Pond, R. S., & Bushman, B. J. (2010). Sweet revenge: Diabetic symptoms predict less forgiv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7), 823-826.
- Dyer, K. F. W., Dorahy, M. J., Hamilton, G., Corry, M., Shannon, M., MacSherry, Al, McRobert, G., Elder, R., & McElhil, B. (2009). Anger, aggression, and self-harm in PTSD and complex PTSD.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5(10), 1099-1114.
- Enright, R. D. (1996). Counselling within the forgiveness triad: On forgiving, receiving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Counselling & Values*, 40(2), 107-127.
-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2000). *Helping Clients Forgive*. (방기연 역. 용서심리학: 내담자의 분노 해결하기). 서울: 시그마프레스.
- Feedman, S. R., (1998).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how they differ. *Counselling & Values*, 42(3), 200-216.
- Greenberg, L. S., Warwar, S. H., & Malcolm, W. M. (2008). Differential effects of emotion-focused therapy and psychoeducation in facilitating forgiveness and letting go of emotional injur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2), 185-196.
- Gross, A. B., & Keller, H. R. (1992).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hood physical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Aggressive Behavior*, 18, 171-185.
- Horsburgh, H. J. (1974). Forgiveness.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4(2), 269-282.
- Joiner, Jr., T. E., Natalie, J. S., LaRicka, R. W., Jessica, S. B., Michael, D. A., & Edward, A. S. (2007). Childhood physical and sexual abuse and lifetime number of suicide attempts: A persistent and theoretically important relationship.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3), 539-547.

- Kempe, C. H., & Helfer, R. E. (1974). *The battered child (1st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wler-Row, K. A., Karremans, J. C., Scott, C., Edlis-Matiyahou, M., & Edwards, L. (2008). Forgiveness, physiological reactivity and health: The role of ang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68, 51-58.
- McCullough, M. E. (2000). Forgiveness as human strength: Theory, measurement, and links to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1), 43-55.
- McCullough, M. E., & Worthington, E. L. Jr. (1999). Religion and the forgiving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67(6), 1141-1164.
- Perkins, D. F. & Jones, K. R. (2004).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8(5), 547-563.
- Reynolds, W. M. (198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0(3), 298-301.
- Snyder, C. R., & Heinze, L. S. (2005). Forgiveness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TSD and hostility in survivors of childhood abuse. *Cognition and Emotion*. 19(3), 413-431.
- Subkoviak, M. J., Enright, R. D., Wu, C., Gassin, E. A., Freedman, S., Olson, L. M., & Sarinopoulos, I. (1995). Measuring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late adolescence and middle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18(6), 641-655.
- Thompson, L. Y., & Snyder, C. R. (2003).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이희경, 이영호, 조성호, 남종호 역. 긍정심리평가: 모델과 측정). 서울: 학지사.
- Thompson, L. Y., Snyder, C. R., Hoffman, L., Micheal, S. T., Rasmussen, H. N., Billings, L. S., Heinze, L., Neufeld, J. E., Shorey, H. S., Roberts, J. C., & Roberts, D. E. (2005). Disposition forgiveness of self, other, and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73, 313-359.
- Worthington, E. L. Jr. (2005). *Handbook of forgiveness*. New York: Routledge.

The Moderating Effects of Forg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uicidal Ideation

Lee, Ki Beom Ju, Hae Won Hyun, Myoung Ho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forgiveness(self-, other-, and situation-forgiveness) on suicidal ideation in young adults with childhood abuse history. Two hundred forty-seven undergraduate students were recruited to complete a set of questionnaires of childhood abuse (K-CTQ), suicidal ideation (SIQ), and forgiveness (HF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simple main effect analysis were conducted by SPSS 20.0.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xperience of physical and emotional childhood abuse have significan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Furthermore,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self-forgiveness and situation-forgiveness have the moderating effect on this relationship, but other-forgiveness did not have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nhancing self-forgiveness and situation- forgiveness can alleviate suicidal ideation on victims of childhood abuse. The 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Childhood Abuse, Suicidal Ideation, Self-Forgiveness, Other-Forgiveness, Situation-Forgiveness